

## 국제화 시대에 꽃핀 영어책 베스트셀러들

90년대 최고의 어학 베스트셀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절박한 심리 반영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부와 권력, 그리고 지식을 획득하는 가장 빠른 길 가운데 하나다. 날로 치열해지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절박한 심리가 영어 학습서를 찾게 하는 동인이다. 90년대 베스트셀러에 오른 영어 학습서들은 국내 영어교육의 폐해를 강조하며 독자적인 학습비법을 전파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일 것이다.

한국인에게 영어는 '아킬레스건' 이자 '도약의 지렛대'다. '영어가 영 어려움' 사람들은 '코쟁이'만 봐도 주눅들기 십상이다. 하지만 영어에 능통한 사람은 국제무대를 주름잡으며 '대한의 기개'를 떨칠 수 있다. 과장해서 말하면, 영어가 계급과 지위의 고하를 가르는 기준선인 셈이다. 해방 이후 줄곧 잠잠한 적이 없던 '영어열풍'의 이면에는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절박한 심리가 깔려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어산업은 불황이 없다. 영어산업의 도약에는 출판도 한몫 해왔다. 문화관광부 납본통계(만화출판 제외)에 따르면, 1998년도 어학도서의 평균 발행종수는 90년에 비해 68% 증가했다. 98년도 전체 신간 발행부수 가운데 어학도서 비중은 약 4%로 낮은 수치지만, 판매량에서는 다른 분야에 뒤지지 않는다. 90년대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살펴보면 금세 눈치챌 수 있다.

### 어학도서의 베스트셀러 진입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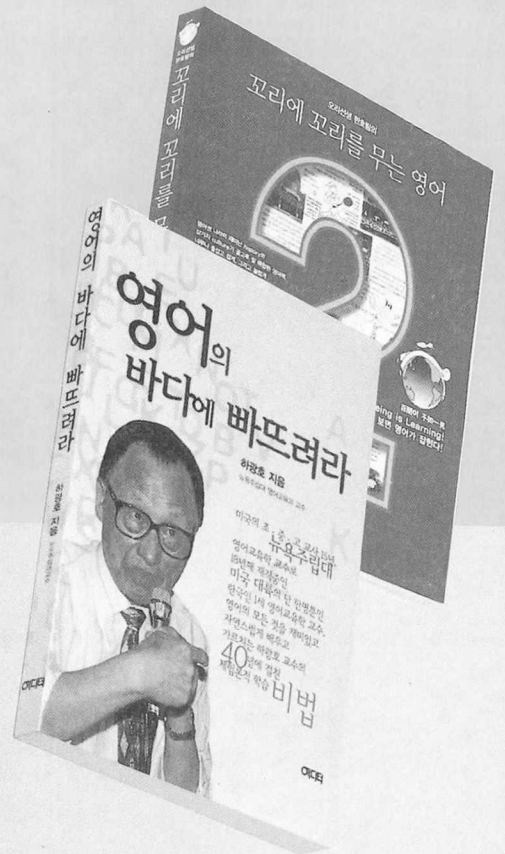
90년대를 통틀어 단행본 영어학습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한호림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디자인하우스). 이 책은 93년에 초판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약 85만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그뿐만 아니다. 이 책부터 비로소 어학도서가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얼굴을 내

밀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어학도서는 참고서로 분류돼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돼왔다.

이 책의 출판과 판매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많다. 저자 한호림씨는 원래 영어 전공자가 아니라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87년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로 이주해 3년 동안 이 책을 집필했다. 하지만 출판사에서는 출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디자인 출판사의 이미지 타격과 영업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출간반대 의견도 많았다. 결국 출간을 결정했지만 성공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빨리 왔다. 출고 10일만에 한 대형서점에서 매절계약을 제안해왔다. 매달 5천부씩 판매되던 것이 그해 추석을 지나자 배로 훌쩍 뛰었다. 책 제목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팔려나갔다. 발간 첫해 10만부, 그 다음해인 94년에는 24만부가 판매돼 종합순위 10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책이 잘 팔린 이유에 대해 디자인하우스의 이영미 편집과정은 "풍부한 실용어휘, 감각적인 디자인과 삽화, 재치있는 문체, 미국문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 등을 두루 갖췄다"는 점을 꼽았다. 독자 가운데 군인이 많다는 점도 특이하다. 자투리시간을 활용하는 데 이 책이 제격이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2》가 나와 판매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



### 총체적 영어교육법 제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의 기세가 주춤할 무렵인 95년 말 새로운 영어 학습서가 등장했다. 미국 뉴욕주립대 영어교육과 하광호 교수가 쓴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에디터)가 그것. 후속작인 《영어의 바다에 헤엄쳐라》와 《영어의 바다에 솟구쳐라》 등 세권을 합쳐 현재까지 약 20만부가 판매됐다. 《꼬리에...》의 판매량에는 못 미치지만 영어 학습법의 바람을 일으켰다.

저자가 주장하는 영어 학습법은 '총체적 영어교육법' (whole Language). 한마디로 외국어를 배우는 데 모국어 습득방법을 그대로 응용하자는 것이다. "하나의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를 익히고 그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 문법을 다시 응용해 말하는 연습을 해보고 또 자신이 말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글로 써보기도 한다"고 일깨워준다.

이 책은 출판사 관계자가 우연히 하교수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기획했다. 출판사측에서는 한국출신 영어교육과 교수로서의 체험이 우리의 영어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편집진이 미국의 하교수를 방문해 그

의 얘기를 녹취하고 이를 정리했다. 편집·제작기간만도 1년 정도 걸렸다. 하교수가 자주 쓰는 '영어의 바다'에 편집부에서 '빠뜨려라' '헤엄쳐라' '숫구쳐라'를 덧붙였다.

이 책을 펴내고 나서 저자는 한국 독자들의 쇄도하는 질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영어공부의 궁금한 사항에 답변해주겠다고 독자들에게 약속했지만,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다. 수백통의 전화와 편지, 전자우편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은 두손을 들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대신 그는 《날마다 먹는 영어의 비타민》《하광호 영문독해》 등의 책으로 답변했다.

### 읽고 이해하는 영문법 책도 나와

97년에는 영어발음 책이 '영어의 바다'를 누르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한국인이 가장 약한 영어발음을 구구단처럼 81가지로 정리한 《헨리 홍의 영어발음 구구단》(한뜻)은 그해 종합 베스트셀러 14위에 올랐다. 이 책은 발음구조가 우리와 다른 영어발음을 한글로 쉽게 풀이한 것이 특징. 예컨대, 'Th' 발음은 혀를 물고 하라는 뜻으로 [ㅎ드으] 또는 [ㅎ뜨으]로 표기했다.

미국에서 교회 목사를 역임한 헨리 홍은 다작가로도 명성이 높다. 그는 《...구구단》을 비롯, 20여권의 영어책을 저술했다. 그의 지론은 영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웠다는 것. 그가 제시하는 영어정복 비법은 간단하다. 중요한 영어발음과 리듬을 외워서 말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쉬운 책부터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폐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공적으로 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문법 위주의 교육이다. 그럼에도 영어 학습서 시장에서 영문법은 여전히 잘 팔리는 품목 가운데 하나다. 97년에 나온 배진용의 《두번만 읽으면 끝나는 영문법》(도솔)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책은 한때 종합 베스트셀러 3위에 오를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현재까지 판매량은 약 30만부.

이 책이 잘 팔린 데는 제목 덕이 컸다. 두번만 읽으면 영문법을 끝낼 수 있다는 데 누가 혹하지 않겠는가. 이 책의 제목은 원고를 인쇄소에 넘기기 하루 전 편집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교체됐다. 원래 제목은 《기

초 영문법》. 하지만 제목 때문에 독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두번 읽었지만 영문법을 끝낼 수 없었다는 전화를 받고 출판사측에서는 궁여지책으로 한번만 더 읽어보라고 답변했다는 얘기도 있다.

도솔의 최정환 대표는 "어려운 영문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이해한다는 것이 이 책의 성공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이 책은 미국의 한국어서점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록을 남겼다. 이 책에 얽힌 미담이 하나 있다. 98년 초 도매상 부도여과 때문에 출판사가 휘청거릴 때, 저자가 부도액의 50%를 인세에서 제외시켜준 것이다.

90년대 후반은 다시 영어 학습법을 다룬 책들의 전성시대. 98년 발간된 정철의 《영어공부 혁명》(해냄)과 지난해 나온 정찬용의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사회평론)가 그것. 현재까지 7만부가 판매된 《...혁명》은 30여년간 영어교수법을 연구해온 저자의 영어 체험기와 저자만의 독특한 영어 학습법을 담았다. 초등학생이 이 책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편지를 보내올 정도로 독자층이 넓다.

저자는 '한국형 영어 수련 단계'를 제안한다. 첫째, 스피드 영어엔진, 기본어휘, 소리감각을 자동화시켜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단계. 둘째,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능과 개념 및 관용구 등을 구사할 수 있는 단계. 셋째, 각자의 전문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단계. 넷째, 외국의 사회·문화적인 특성과 풍습을 이해하고 그들의 특이한 표현에 익숙해지는 단계" 등이다.

### 영어학습의 자기성찰 필요할 때

90년대에 베스트셀러가 된 영어 학습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어 '학습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세권으로 가장 많다. 어휘·발음·영문법을 다룬 책들은 각각 관련씩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수십년 동안 배운 영어가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베스트셀러 저자들이 대부분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꼭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하나. 대부분 초급영어에만 몰려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도솔의 최정환 대표는 "중급, 나아가 고급영어 시장을 겨냥한 영어 학습서 시장에 출판사들이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앞으로도 영어책은 출판시장에서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판사나 독자 모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빠뜨린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왜 영어를 배워야만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이다.

— 박천홍 기자

